

**서론: 이스라엘 백성과 현대인의 비교**

끝없는 노역 VS 끝없는 업무 // 끝을 모르는 지친 일상 // 쉼이 모자란 하루

**본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살피심**

**1.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장 23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2장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3장 7절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부르짖음’이란 목소리의 크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짖는다’란 표현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2. 고난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와서..."

 3장 12절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3.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8절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 이르려 하노라.”

          3장 10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3장 12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결론: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된 노역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빛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일예배 설교노트 설교자: 김영목 목사**

**“보살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장 23절 – 3장 12절**